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장기 진로 계획의 관련성

박정민, 박신지, 박소연, 박서현, 홍진희*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Male Nurses and Long-term Career Planning

Jeong Min Park, Shin Ji Park, So Yeon Park, Seo Hyeon Park, Jineui Hong*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진로계획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과 장기적 진로 계획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188명이다. 장기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간호사가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OR = 4.59), 간호사가 여성적이거나 수동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OR = 2.73), 남자 간호사가 평생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인식(OR = 2.15) 등이 임상 외 분야로 장기 진로 선택을 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성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남성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성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 외 진로 요구도가 높은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임상 간호사만이 아닌 다양한 간호 전문직을 소개하는 진로 교육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 수 있게 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s of male nurses and their career plans, and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erceptions and their long-term career plans. The study subjects comprised 188 male students enrolled in nursing department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across the country, as of August 2022.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long-term career paths by selec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e perception that nursing is not a job suitable for men and women (OR = 4.59), that male nurses are not perceived as feminine or passive (OR = 2.73), and that male nurses are not considered to have a lifetime job (OR = 2.15) were identified as factors to consider when choosing a career in a non-clinical field. Male nursing students who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male nurses were more likely to pursue non-clinical field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study identifies the career needs of male nursing students. We determined that the career path had a strong impact on deciding between non-clinical and clinical fields.

Keywords : Male Nurses, Nursing Students, Nurses, Career Choices, Long-term Career Planning

*Corresponding Author : Jineui Hong(Gwangju Health Univ.)

Email: hong@ghu.ac.kr

Received February 21,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March 20,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신체 간호와 의사의 보조였고, 여성이 전담하는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성애와 여성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1].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간호사의 인식변화로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는 간호학과와의 인기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의 비율이 최근 20%에 이르게 되었다[2]. 간호사 국가고시 통계에 따르면 남자 간호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도 2월 기준 총 2만 8,194명으로 확인되었다[3].

많은 남학생들이 간호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남자 간호사의 면허취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 임상 현장에 근무하면서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5]. 젊은 여성 환자들이 남자 간호사를 간호사가 아닌 하나의 남성으로 여겨 그들의 간호행위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남자 간호사는 여성 대상자의 간호 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5,6]. 간호사로서 필수적인 간호행위인 유방암 환자 수술 부위 드레싱, 도뇨관 삽입, 관장, 욕창 사정, 수술 전 간호에 필요한 제모,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환의 교환 등 가슴과 생식기의 노출이 필수적인 간호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7]. 대한 남자간호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의료기관에 남자 간호사를 위한 탈의실과 휴게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자 간호사를 병원에 있는 다른 직종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고층 사항 개선에서는 병원 내에서 남자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등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8]. 이러한 경험과 사회적으로 간호사는 여성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간호행위를 거부당한 경험은 남자 간호사의 역량 확보 및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4]. 이는 남자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어 2016년 기준 남자 간호사 이직률(27.1%)이 전체 간호사 이직률(12.6%)의 두 배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5,9].

이런 현실이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3학년부턴 임상 실습에 임하게 되며, 임상 실습을 경험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희망이 병원 간호사

가 52.8%, 지역사회간호사 47.2%로 지역사회 간호사의 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8]. 많은 남자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 중에 남자라는 이유로 실습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차별을 받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그로 인해 직업에 대해 갈등하는 경험을 한다[10]. 이런 점들이 남자 간호사에 대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인 인식과 추후 진로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나 남자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진행 되어 인식과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11,12].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선택 경향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향후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 수준, 첫 진로계획과 장기 진로계획을 확인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른 첫 진로계획의 차이 및 장기 진로 계획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장기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남자 간호 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진로 선택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22년도 8월 기준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학생이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국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고안된 Peduzzi 등[13]의 표본 수 계산 방법에 따라 독립변수 8개, 양성 비율 47.6을 대입하여 168명의 목표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응답자는 총 227명이었다. 이중 동의하지 않은 1명, 여자 33명, 진로계획 없음 2명, 간호 학생이 아니라고 응답한 3명을 제외하여 첫 진로계획 분석에는 18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장기 진로계획 분석에는 응답 결측을 가진 3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185명을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학년, 결혼, 종교, 병역 유무, 학점, 타전공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2.2.2 첫 진로계획 및 장기 진로계획

진로계획에 대한 항목은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제작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첫 진로(졸업 후 첫 번째로 선택한 진로)와 장기적인 진로(첫 번째 진로 이후에 선택한 진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첫 진로계획과 장기 진로계획을 나누어 질문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 전 타 전공 경험에 대한 질문은 2개, 간호직 희망 이유 9개, 졸업 후 첫 직장 희망 진로 2개, 졸업 후 이직 의도 1개, 졸업 후 장기 희망 진로 2개의 문항이다. 희망 진로에 대한 변수는 임상 간호사와 임상 외 간호사(보건의직 공무원, 구급대원, 보건관리자, 보건 교사, 간호장교 등)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3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Mun[1]이 사용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다. 긍정적 인 질문은 14개, 부정적인 질문은 2개 문항이며,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각각의 세부 질문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Yes 또는 other와 No 또는 other로 코딩하였다. Mun[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대상자별로 측정되었으며 남자 고등학생은 Cronbach's α =.879, 학부형은 Cronbach's α =.908, 교사는 Cronbach's α =.85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Cronbach's α 는 .836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헬싱키 선언 등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8월 18일 ~ 2022년 8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간호학과 학생회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연구의 목적, 참여 방법,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구글 폼의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를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시 익명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이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밝히고 추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 신상 정보를 삭제 후 비밀번호를 걸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6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개인 요인,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 첫 진로 및 장기 진로 등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장기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88명이고, 1학년 62명(33.0%), 2학년 50명(26.6%), 3학년 49명(26.1%), 4학년 27명(14.1%)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124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기독교가 47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병역은 미필이 110명(58.5%), 간호학과 입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
| Enrolled participants | (Total) | 188 | (100.0) |
| Grade | 1st | 62 | (33.0) |
| | 2nd | 50 | (26.6) |
| | 3rd | 49 | (26.1) |
| | 4th | 27 | (14.1) |
| Religion | None | 124 | (66.0) |
| | Protestantism | 47 | (25.0) |
| | Catholic | 10 | (5.3) |
| | Buddhism | 7 | (3.7) |
| Military | Yes | 78 | (41.5) |
| | No | 110 | (58.5) |
| Experience in other major | Yes | 35 | (18.6) |
| | No | 153 | (81.4) |
| Medic career | Yes | 44 | (23.4) |
| | No | 144 | (76.6) |
| Presence of Nurse Relatives | Yes | 29 | (15.4) |
| | No | 159 | (84.6) |
| Grade point average | 4.0≤ | 150 | (79.8) |
| | <4.0 | 38 | (20.2) |

학 전 다른 전공 경험의 여부는 153명(81.4%)이 없다고 답하였다. 의무병 경험자는 44명(23.4%), 가족 및 친척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명(15.4%), 학점 평균은 4.0 이상이 150명(79.8%) 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첫 진로계획과 장기 진로계획

졸업 후 첫 진로계획은 임상 분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157명(83.5%), 임상 외 분야는 31명(16.5%)이었고, 졸업 후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진로계획은 임상 분야가 97명(51.6%), 임상 외 분야는 88명(46.8%)으로 확인되었다. 졸업 후 첫 번째 진로계획으로 임상을 선택한 경우 학점 평균이 '4.0 이상'이 23.6%, '4.0 미만'이 76.4%였고 임상 외 분야의 경우 학점 평균 '4.0 이상'이 3.2%, '4.0 미만'이 20.2%였다($\chi^2=6.64, p=.010$). 장기 진로에 있어서 학년과 임상 분야 선택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16.55, p=.001$). 장기적 진로로 임상 분야를 선택한 경우 군필자는 46.4%, 미필자는 53.6%였고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는 군필자는 71.6%, 미필자는 28.4%로 확인되었다($\chi^2=12.06, p=.001$). 장기 진로로 임상 분야를 선택한 의무병 경험자는 15.5%, 의무병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84.5%였고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한 의무병 경험자는 33.0%, 경험하지 않은 경우 67.0%였다($\chi^2=7.79, p=.005$) (Table 2).

3.3 남자 간호사 인식에 따른 첫 진로계획의 차이와 장기 진로계획의 차이

남자 간호사 인식 도구를 활용하여 16개의 문항을 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한 평균점수는 장기 진로계획에서 임상 분야(3.77±0.47)와 임상 외 분야(3.59±0.53)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5$). 단기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임상을 선택한 경우의 82.2%가 임상 외를 선택한 사람의 64.5%가 '간호직은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p=0.027$), '남자 간호사는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에 동의한 경우 80.9%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58.1%가 임상을 선택하였다($p=0.006$).

장기 진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간호직은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 동의한 사람의 88.7%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 68.2%가 임상을 선택하였으며($p=0.001$), 남자 간호사는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동의한 사람의 85.6%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69.3%가 임상을 선택하였다($p=0.008$).

'남자 간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일 것이다'에 동의한 한 사람의 48.5%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74.4%가 임상을 선택하였으며($p=0.000$), '남자 간호사는 직업 선택을 잘못된 것이다'에 동의한 사람의 76.3%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88.6%가 임상을

Table 2. Comparison of career plan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 Variables | Categories | 1st career plan (N=188) | | | Long-term career plan (N=185) | | |
|-----------------------------|------------|-------------------------|-----------|----------------|-------------------------------|-----------|-----------------|
| | | Clinical | Other | χ^2 (p) | Clinical | Other | χ^2 (p) |
| | | N (%) | N (%) | | N (%) | N (%) | |
| (Total) | | 157(83.5) | 31(16.5) | | 97(52.4) | 88(47.6) | |
| Grade | 1st | 56 (35.7) | 6 (19.4) | 3.36 (.339) | 44 (45.4) | 17 (19.3) | 16.55 (.001) |
| | 2nd | 41 (26.1) | 9 (29.0) | | 23 (23.7) | 27 (30.7) | |
| | 3rd | 39 (24.8) | 10 (32.3) | | 22 (22.7) | 25 (28.4) | |
| | 4th | 21 (11.2) | 6 (19.4) | | 8 (8.2) | 19 (21.6) | |
| Religion | Yes | 50 (31.8) | 14 (45.2) | 2.04 (.153) | 31 (32.0) | 32 (36.4) | 0.40 (.528) |
| | No | 107 (68.2) | 17 (54.8) | | 66 (68.0) | 56 (63.6) | |
| Military | Yes | 90 (57.3) | 20 (64.5) | 0.55 (.458) | 45 (46.4) | 63 (71.6) | 12.05 (.001) |
| | No | 67 (42.7) | 11 (35.5) | | 52 (53.6) | 25 (28.4) | |
| Medic career | Yes | 35 (22.3) | 9 (29.0) | 0.66 (.418) | 15 (15.5) | 29 (33.0) | 7.79 (.005) |
| | No | 122 (77.7) | 22 (71.0) | | 82 (84.5) | 59 (67.0) | |
| Presence of Nurse Relatives | Yes | 25 (15.9) | 4 (12.9) | 0.18 (.670) | 18 (18.6) | 11 (12.5) | 1.28 (.258) |
| | No | 132 (84.1) | 27 (87.1) | | 79 (81.4) | 77 (87.5) | |
| Experience in other major | Yes | 27 (17.2) | 8 (25.8) | 1.27 (.260) | 13 (13.4) | 21 (23.9) | 3.37 (.067) |
| | No | 130 (82.8) | 23 (74.2) | | 84 (86.6) | 67 (76.1) | |
| Grade point average | 4.0≤ | 37 (23.6) | 1 (3.2) | 6.64 (.010) | 22 (22.7) | 16 (18.2) | 0.57 (.449) |
| | <4.0 | 120 (76.4) | 30 (96.8) | | 75 (77.3) | 72 (81.8) | |

선택했다(p=0.028). '남자 간호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적합하다'에 동의한 사람의 경우 41.2%,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7.3%가 임상을 선택하였으며(p=0.046),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할 것이다'에 동의한 사람의 54.6%, 동의하지 않

은 사람의 33.0%가 임상을 선택했다(p=0.003) (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장기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남자 간호사에 대

Table 3. Comparison of career plans according to perceptions of male nurses

| Variables | | 1st career plan (N=188) | | | Long-term career plan (N=185) | | |
|---|------------|-------------------------|-------------|--------------------|-------------------------------|-------------|--------------------|
| | | Clinical | Other | t (p) | Clinical | Other | t (p) |
| | | M±SD | M±SD | | M±SD | M±SD | |
| Average score for perception of male nurses | All | (3.71±0.50) | (3.57±0.51) | 1.41(.161) | (3.77±0.47) | (3.59±0.53) | 2.47(.150) |
| | 6 var. † | (3.80±0.66) | (3.62±0.64) | 1.42(.158) | (3.89±0.63) | (3.66±0.66) | 2.40(.170) |
| Variables | categories | N (%) | N (%) | x ² (p) | N (%) | N (%) | x ² (p) |
| Responsible | Yes | 130 (82.8) | 26 (83.9) | 0.02 (.885) | 82 (84.5) | 71 (80.7) | 0.48 (.489) |
| | Other | 27 (17.2) | 5 (16.1) | | 15 (15.5) | 17 (19.3) | |
| A suitable job for both gender | Yes | 129 (82.2) | 20 (64.5) | 4.91** (.027) | 86 (88.7) | 60 (68.2) | 11.63*** (.001) |
| | Other | 28 (17.8) | 11 (35.5) | | 11 (11.3) | 28 (31.8) | |
| A high income | Yes | 50 (31.8) | 5 (16.1) | 3.09 (.079) | 33 (34.0) | 21 (23.9) | 2.30 (.129) |
| | Other | 107 (68.2) | 26 (83.9) | | 64 (66.0) | 67 (76.1) | |
| Role model for one's children | Yes | 127 (80.9) | 18 (58.1) | 7.65** (.006) | 97 (85.6) | 88 (69.3) | 7.06 (.008) |
| | Other | 30 (19.1) | 13 (41.9) | | 14 (14.4) | 27 (30.7) | |
| Feminine and passive | No | 93 (59.2) | 24 (77.4) | 3.64 (.056) | 47 (48.5) | 69 (78.4) | 17.70*** (<.001) |
| | Other | 64 (40.8) | 7 (22.6) | | 50 (51.5) | 19 (21.6) | |
| Wrong job choice | No | 126 (80.3) | 27 (87.1) | 0.80 (.371) | 74 (76.3) | 78 (88.6) | 4.80* (.028) |
| | Other | 31 (19.7) | 4 (12.9) | | 23 (23.7) | 10 (11.4) | |
| Good adaptability and relationship | Yes | 94 (59.9) | 16 (51.6) | 0.73 (.394) | 59 (60.8) | 48 (54.5) | 0.75 (.388) |
| | Other | 63 (40.1) | 15 (48.4) | | 38 (39.2) | 40 (45.5) | |
| Good at nursing | Yes | 131 (83.4) | 26 (83.9) | 0.004 (.953) | 81 (83.5) | 73 (83.0) | 0.01 (.920) |
| | Other | 26 (16.6) | 5 (16.1) | | 16 (16.5) | 15 (17.0) | |
| Suitable for OBGY and NU ‡ | Yes | 57 (36.3) | 7 (22.6) | 2.17 (.141) | 40 (41.2) | 24 (27.3) | 3.98** (.046) |
| | Other | 100 (63.7) | 24 (77.4) | | 57 (58.8) | 64 (72.7) | |
| Many opportunities for promotion | Yes | 23 (14.6) | 6 (19.4) | 0.44 (.507) | 12 (12.4) | 16 (18.2) | 1.21 (.271) |
| | Other | 134 (85.4) | 25 (80.6) | | 85 (87.6) | 72 (81.8) | |
| Easy to get a job | Yes | 101 (64.3) | 21 (67.7) | 0.13 (.716) | 60 (61.9) | 59 (67.0) | 0.54 (.462) |
| | Other | 56 (35.7) | 10 (32.3) | | 37 (38.1) | 29 (33.0) | |
| Be trusted | Yes | 91 (58.0) | 17 (54.8) | 0.10 (.748) | 58 (59.8) | 47 (53.4) | 0.77 (.381) |
| | Other | 66 (42.0) | 14 (45.2) | | 39 (40.2) | 41 (46.6) | |
| A lifelong occupation | Yes | 70 (44.6) | 12 (38.7) | 0.36 (.547) | 53 (54.6) | 29 (33.0) | 8.79*** (.003) |
| | Other | 87 (55.4) | 19 (61.3) | | 44 (45.4) | 59 (67.0) | |
| Prompt handling of work | Yes | 90 (57.3) | 13 (41.9) | 2.48 (.116) | 55 (56.7) | 46 (52.3) | 0.37 (.546) |
| | Other | 67 (42.7) | 18 (58.1) | | 42 (43.3) | 42 (47.7) | |
| Demonstrate leadership | Yes | 130 (82.8) | 24 (77.4) | 0.51 (.477) | 82 (84.5) | 69 (78.4) | 1.16 (.283) |
| | Other | 27 (17.2) | 7 (22.6) | | 15 (15.5) | 19 (21.6) | |
| Expect Yes image improvement | Yes | 76(48.4) | 14 (45.2) | 0.11 (.741) | 49 (50.5) | 39 (44.3) | 0.71 (.399) |
| | Other | 81(51.6) | 17 (54.8) | | 48 (49.5) | 49 (55.7) | |

† Average meaningful 6 score : a suitable job for both gender, role model for one's children, feminine and passive, Wrong job choice, Suitable for OBGY and NU, a lifelong occupation

‡ OBGY and NU :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Neonatal unit

한 인식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 진로 선택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군 미필자에 비해 군필자가 장기 진로로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는 경우가 OR 2.39(1.17-4.86)로 더 높았다. 간호직을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4.59(1.72-12.25)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간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2.73 (1.27-5.84)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사는 직업 선택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학생들보다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3.40 (1.05-10.98)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2.15(1.06-4.37)로 나타났다.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Long-term Career Planning of Male Nursing Students

| Variables | Categories |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 | |
|--------------------------------|------------|--------------------------------|--------------|------|
| | | OR | (95% CI) | p |
| Military experience | No | | ref. | |
| | Yes | 2.39 | (1.17-4.86) | .017 |
| Grade point average | 4.0≤ | | ref. | |
| | <4.0 | 1.60 | (0.68-3.77) | .283 |
| A suitable job for both gender | Yes | | ref. | |
| | Other | 4.59 | (1.72-12.25) | .002 |
| Role model for one's children | Yes | | ref. | |
| | Other | 1.26 | (0.51-3.14) | .614 |
| Feminine and passive | Other | | ref. | |
| | No | 2.73 | (1.27-5.84) | .010 |
| Wrong job choice | Other | | ref. | |
| | No | 3.40 | (1.05-10.98) | .041 |
| Suitable for OBGY and NU* | Yes | | ref. | |
| | Other | 1.20 | (0.58-2.49) | .627 |
| A lifelong occupation | Yes | | ref. | |
| | Other | 2.15 | (1.06-4.37) | .034 |

* OBGY and NU :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Neonatal unit

4. 논의

간호대학생은 졸업하고 대부분 임상에서 첫발을 내딛지만 여러 이유로 임상에서 이탈하고 있다[14]. 특히 남자 간호사의 경우 그 숫자가 여성의 2배에 이른다[15].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자 간호대학생은 첫 진로계획으로 병원 임상을 선택하지만, 장기적인 진로계획은 임상 외의 분야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임상에서도 경력을 쌓고 임상 외의 분야로 이직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으로는 남학생이 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16] 간호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 연구를 통해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임상 외의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간호직을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OR 4.59), 남자 간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으로 인식(OR 2.73),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OR 2.15) 등이 임상 외의 분야로 진로 설정하는데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희망 근무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을 희망하는 경우가 낮아졌다. 이는 학과에 재학하면서부터 임상을 원하지만, 졸업반이 될수록 병원 외 취업을 고려하게 된다는 Jeong[9]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교내실습(기본 간호학 실습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간호 기술을 접하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한다. 반대로 임상 실습을 경험하게 되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는데, 남학생으로서 한계점을 마주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7]. Joo[18]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부 임상 실습(주로 여성 간호학 실습) 중 현장에서 배제되어 자율학습으로 실습 시간을 보내며,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행동 제한을 받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실제로 학과의 교육과정이 여학생 중심으로 치우쳐져 여성 지배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19], 자신의 남성성과 조직의 여성성의 충돌로 인해 진로를 고민하는 등[20]의 문제를 마주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았을 때, 부정적인 임상 실습 경험과 남자 간호사의 현실에 노출되고 있는 점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에 대한 부정적인 소견을 갖게 하여 임상 외 분야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임상 외의 분야로 진로 설정을 하게 되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최경혜 등[5]의 연구는 임상에서 간호행위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남자 간호사는 역량이 저하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이직을 원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취업에 용이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음에도 실습을 통해 남자 간호사 처우에 대해 느낌과 동시에

점차 자신은 임상 분야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직이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자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추후 임상 외 분야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사 이미지 [8]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남자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사회적 인식이나 본인의 병원 방문 경험, 임상 실습 등 여러 경험을 통해 마주칠 수 있었던 간호사의 모습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20]. 따라서 병원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역할 모델 사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병역 여부에서도 군필자가 미필자에 비해 장기 진로로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 2.39). 이는 군 입대로 인한 동기들의 부재, 군에서의 남성성 강조와 복학 후 여성 집단과의 동화에서 충돌을 겪으며 여성 집단인 병원 취업을 고민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특히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대상자들은 임상 분야보다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게 된다[20]. 의무병과에는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의료, 약제, 의료기사 등과 관련한 학과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즉 복무기간 동안 군 병원의 다른 의무병과의 접촉 및 교류, 특수 파트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분야를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 임상 외 분야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21].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다양한 분야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바라보고, 임상 외의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의무병은 복무하는 환경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에 군 경험, 의무병 경험과 관련된 자세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군 경험과 의무병 경험을 포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남자 간호사는 직업 선택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학생들보다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확률이 약 3.4배(OR 3.40)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가 가능한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간호학생들은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임상 외 분야로 간호직/보건의료 공무원(20.7%)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소방직 공무원 12.2%, 산업간호사 6.9%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기존 사회에 진출한 남자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은 병

원 간호사가 아닌 보건 관련 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교사 등 병원 외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16] 맥락을 함께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직업을 구분하는 인식 때문에 남학생과 남자 간호사의 자존감이 낮다고 보고되었다[22]. 게다가 근무환경의 열악함, 근무시간은 길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인식 등 때문에 남자 간호사의 이직률이 여자간호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남자 간호사가 적응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그럼에도 첫 직장으로 병원을 택한 것은 간호학과의 취업 및 진로의 지도가 임상에 맞추어져 있고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는 것은 경력을 쌓은 후 소방직 공무원, 산업간호사 등으로의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OR 2.15)은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연금 지급이 되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소방직 공무원을 생각하며 병원에서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지역사회 간호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들은 의료기관에서 남자 간호사기에 겪는 어려움과 직업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길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대학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학생들, 졸업 이후의 남자 간호사 등과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한 전 수의 남자 대학생과 남자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군 생활을 경험한 이후로 진로에 대해 생각이 바뀌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향후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자 간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급이나 교수 등의 직책에 이른 사람들이 적어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으로서 간호 전문직으로 20년 또는 30년 등 장기간의 삶을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점 때문이다. 향후 구체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그로 인해 간호 전문직, 특히 임상 진로 선택 및 적응 그리고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간호대 남학생들의 진로 선택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남학생들의 생각과 진로 요구도를 조사했기 때문으로, 진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요구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은 병원 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점점 다양해지는 간호사의 진로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간호사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 교과목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5. 결론 및 제언

첫째, 본 연구결과 간호직을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 남자간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및 인식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 전문직이 여성적인 직업보다는 전문직 자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전문성 증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하면 개선될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남자 간호대학생이 주로 접하게 되는 병원 내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임상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남자 간호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의 방향이 임상뿐만 아니라 임상 외의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요구도를 파악한 점이 의미가 크다. 남자 간호사의 직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임상 외의 진로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간호 전문직의 모습을 소개하는 등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진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 시점에 필요한 변수들만을 조사하여 연구하는 등 삶 전반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류인 직업군과 사회에서 남성이 진입하여 성장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직무, 건강 등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관찰이 필요하며 연구의 의미가 클 것이므로 향후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J. Mu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ing, Male Nurses, and Nursing as Possible Career Consideration : Focused on Male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Jinju, Korea, pp.1-113, 2010.
- [2] Ministry of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 [cited 2022.03.15]. Available From: <https://kessi.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2&menuSeq=0&itemCode=02&language=en> (accessed Jan. 31, 2023)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and Medical Policy Office Medical Manpower Policy Divisio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rvey. [Internet]. Ministry of Health; 2020 [cited 2023.03.15].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10_E001&conn_path=I2 (accessed Jan. 31, 2023)
- [4] H. S. Kim, J. S. Lee, "Turnover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7, No.1, pp.25-38, 2017. DOI: <https://doi.org/10.4040/jkan.2017.47.1.25>
- [5] G. H. Choi, H. J. Kim, E. S. Nam, H. J. Hyun, H. W. Kang, et al. "Male Nurses' Experiences of Being Rejected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16-28,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16>
- [6] H. E. Chang, C. H. Woo, "Male Nurses' Experiences of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3, No.2 pp.43-56, 2022. DOI: <https://doi.org/10.5807/kjohn.2022.31.2.43>
- [7] J. H. Kim, K. O. Park, J. K. Kim, H. J. Yun, J. H. Lee, E. K. Cho, et al. "An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es at General Nursing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5, pp.496-506, 2016.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6.22.5.496>
- [8] M. S. Kim, Please change into a female nurse"...Male nurses neglected [Internet] Yonhap News [Cited 2017 December 17],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162900017> (accessed Jan. 31, 2023)
- [9] K. S. Jeong, H. O. Ju,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2, No.3, pp.177-184, 2015. DOI: <https://doi.org/10.5953/JMJH.2015.22.3.177>
- [10] M. H. Kim, M. S. Song,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 of Men in Nursing as a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1, pp.223-229, 2020.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0.6.1.223>
- [11] E. S. Lee, H. S. Kwon, Y. S. Lee, “Factors Affecting Female Nurse’s Imag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Vol.24, No.3, pp.336-344, 20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294420>
- [12] S. R. Kim, Y. J. Kim, S. H. Hong., C.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and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1, No.2, pp.148-155, 2015.
DOI: <https://doi.org/10.14370/JEWN.2015.21.2.148>
- [13] P. Peduzzi, J. Concato, E. Kemper, T. R. Holford, and A. R. Feinstein, “A Simulation Study of the Number of Events per Variable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49, No.12, pp.1373-1379, 1996.
DOI: [http://dx.doi.org/10.1016/S0895-4356\(96\)00236-3](http://dx.doi.org/10.1016/S0895-4356(96)00236-3)
- [14] H. S. Kim,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intention, gender stereotype, resilience, and peer support of male nurses*”,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Busan, Korea, pp1-73, 2022
- [15] S. H. Chen, H. Y. Yu, H. Y. Hsu, F. C. Lin, J. H. Lou, “Organisational support, organis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s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mong male nurs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21, No.8, pp.1072-1082, 2013.
DOI: <http://dx.doi.org/10.1111/j.1365-2834.2012.01449.x>
- [16] E. S. Hwang, A man who quit a large company and became a nurse, I found the life I wanted [Internet] Chosun News Press [Cited 2014 April 17],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162900017> (accessed Jan. 31, 2023)
- [17] S. L. Lee, “*The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Institution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Korea, pp. 1-59, 2011.
- [18] E. K. Joo, “Male nursing student Experience with Clinical Practice in Women’s Health Nurs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7, pp.597-610, 2018.
DOI: <http://dx.doi.org/10.35873/aimahs.2018.8.7.059>
- [19] S. J. Ju, J. H. Choi, C. M. Kim, D. N. Oh, M. S. Park,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Experience of Men in Nursing as a Student”,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7, No.2, pp.110-122, 2018.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8.27.2.110>
- [20] H. Kim , “Male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Experience in Nursing Colleg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218, No.1 pp.253-267, 20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198108>
- [21] I. O. Sim, J. M. Park,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as medics during the military service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 3. pp.499-508,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499>
- [22] A. Stott,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e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27, no.4, pp.325-332, 2007.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6.05.013>

박 정 민(Jeong Min Park)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학

박 신 지(Shin Ji Park)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학

박 소 연(So Yeon Park)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학

박 서 현(Seo Hyeon Park)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학

홍 진 의(Jineui Hong)

[정회원]



- 2019년 8월 :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21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2년 1월 ~ 2021년 8월 : 한양대학교병원 간호사
- 2021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빅데이터, 공중보건